작년 전남 수산물 수출 1억4천만달러 사상최대

2010년 보다 35% 늘어
미역·김·전복 55% 차지

지난해 전남지역 수산물 수출액이 1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실적은 2010년 수출액(1억415만 달러)에 비해 35%나 늘어난 것으로 연초에 세웠던 해외 수출 1억 달러 목표치를 전년에 비해 2개월 빠르게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주요 품목은 미역, 김, 전복이다. 이들 3개 품목의 수출액은 7760만 달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특히 전복은 단일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30%인 4100만 달러를 기록해 효자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미역도 전년대비 148%의 높은 신장세를 보여 양식 어민들의 소득 또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역 수출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일본 지진으로 일본 내 해조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전남산 미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때문이다.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본에 대한 수출은 전체의 86%인 1억217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일본과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복과 함께 전국 최대 생산품목인 해조류에 대해 세계적 식품 안전기준(HACCP)에 맞는 위생처리 시설을 갖추고 품목별 어업인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전남 수산물의 해외 수출 기반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KJB광주은행은 27일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송기진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가졌다. 광주은행 임직원 일동이 경영전략회의 전 '여수EXPO' 성공기원 입장권 4억원을 구매하고 후원은행 역할에 최선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올 목표는 내실 성장"

경영전략회의…여수박람회 입장권 4억원어치 구매행사도

광주은행은 지난 27일 '내실경영과 적정성장'을 주 내용으로 한 올해 경영목표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날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송기진 행장과 임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올 경영 목표와 5대 중점 전략을 밝혔다.

5대 중점 전략은 ▲최적화된 리스크 관리 강화로 건전성 제고 ▲소매(Retail) 및 중소기업 영업력 확충 ▲지속성장을 위한 수익기반 확충 ▲고객만족도와 브랜드 가치 제고 ▲원두(One Do) 혁신 내재화 및 다양한 공생경영 실천 등이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친절한 은행, 상냥한 은행원'으로 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은행으로 탈바꿈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사업실적 분석과 함께 우수 실적 영업본부 등 시상, 주요 사업부서와 영업본부별 상반기 추진전략 발표, 영업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지난해 국내외 경기침체와 지역 건설업체의 기업회생 신청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영업력을 확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난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긍사적천(肯思積踐)의 마음으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당기순이익 1500억원 이상을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앞서 광주은행은 이날 여수 EXPO 현장을 방문해 박람회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와 4억원의 여수EXPO 입장권을 구매키로 하는 '입장권 구매행사'를 가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단기 급등 피로…주초 관망세
반도체·건설 저가매수 기회

신용등급 강등 이후 진행된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국채발행이 대부분 양호한 성적으로 내면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한층 완화됐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내비쳐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를 한 단계 호전시켰다.

지난 12월 말 이후 국내증시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초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 증가와 기술적 부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유럽의 잔존 리스크들이 남아 있다. 코스피는 전 고점 부근에 도달한 후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주요국 주식시장의 강세에 이어 경기 민감도가 높은 구리·아연과 같은 비철금속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일부 되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연초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탈리아의 대규모 국채 만기와 EU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상승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재정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이탈리아의 국채만기가 저금리로 원활하게 롤오버될 경우 대규모 국채 만기 부담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성공사례를 남기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가중되어 온 유럽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결국 코스피도 2000의 저항력과 유럽의 주요 이벤트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교차하며 주초 관망세가 우세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 재정 위기국의 대규모 국채 만기를 앞두고 오히려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유럽 국채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하락 반전보다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주 초반 관망심리에 따른 조정세가 전개될 경우에는 최근 2012년 연간 영업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설,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과 이탈리아의 대규모 국채만기에 대한 부담감, 포르투갈로의 디폴트 우려 전이 가능성 등 일부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주가가 단숨에 박스권을 넘어 추세적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시점이다.

따라서 코스피가 과열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박스권 하단을 높이고 상단 돌파를 타진하는 정도의 흐름을 염두에 둔 시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타이어 미끄럼방지제 제동력 '우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타이어 미끄럼방지제가 눈길에서 일시적인 제동 력은 가장 우수하지만 20~30분 뒤 제동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첨단주행장치를 켜고 운전하면 눈길 코너링이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의 눈 덮인 도로에서 시속 50㎞로 달리다 급제동하는 실험을 한 결과 미끄럼방지제를 뿌린 타이어의 제동 거리가 37.2m로 가장 짧았다. 쇠사슬 체인(41.4m), 직물 체인(42.2m), 우레탄 체인(44.1m), 일반 타이어(47.0m)가 그 뒤를 이었다.

미끄럼방지제는 탁월한 일시적 제동 효과에도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미끄럼방지제는 눈길 주행 후 20~30분이 지나면 제동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시험은 잠김방지브레이크장치(ABS)와 차체자세제어장치(VDC)를 장착한 쏘나타와 SM5를 이용했다.

눈길에서는 일반 타이어보다 스노우 타이어의 제동력이 월등했다.

눈과 결빙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2011년에 5246건으로 2010년(2601건)에 비해 2배 늘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77.1%나 988.3%나 급증했다. /연합뉴스

하나·외환銀 합병땐 카드시장 점유율 9%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함에 따라 신용카드 업계가 요동칠 태세다.

업계 후발 주자인 하나SK카드가 외환은행과 합치면 단숨에 대형 카드사들을 위협할 존재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시장 점유율은 신한카드가 23%, KB국민카드가 14%,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각각 11~12%, 롯데카드와 우리은행의 우리카드가 각각 8%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 분사한 하나SK카드는 카드 시장 점유율이 5% 남짓에 불과하지만 외환은행의 외환카드를 더하면 점유율이 9%대로 껑충 뛰어오른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대적할 수준이 된다는 의미다.

현재 카드 시장은 과열 경쟁을 막으려고 금융 당국이 몸집 불리기를 막고 있어 카드사의 서열 변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외환카드가 하나SK카드와 같이 묶이면서 카드사 간에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KB국민카드나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강력한 경쟁자 등장이 임박함에 따라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과거 업계 꼴찌였던 신한카드가 LG카드를 인수하면서 국내 최대 카드사로 부상했던 것을 지켜봤던 터라 마음이 다급할 수밖에 없다.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는 연내 합쳐지기보다는 과도기 단계인 쌍두마차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기업대출 대기업 편중

기업대출이 대기업에 쏠리고 있다.

최근 1년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대기업의 8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경기둔화 탓에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이 우려된다.

29일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기업대출 통계를 보면 2011년 11월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62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3.2% 늘었다.

같은 해 9월과 10월 증가율 2.2%, 2.4%에 비교하면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이면을 보면 중소기업의 자금여력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대기업 대출 잔액은 125억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의 8.3배에 달한다. . /연합뉴스

하이트진로 '참이슬 봉사단' 5기 발대

하이트진로(주)(대표 김인규)가 운영하는 '하이트진로 情나눔 참이슬 봉사단'은 27일 광주그랑시아웨딩홀에서 광주 주요대학 대학생 36명의 4기 단원들의 봉사단 수료식과 새롭게 45명으로 구성된 5기 단원 발대식을 가졌다.

2011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4기 단원들은 매월 2회 광주천 정화활동, 무등산 등산로 정화, 틔움 복지재단 봉사활동을 실시해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5기 단원들은 2월부터 오는 6월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하이트진로 情나눔 참이슬 봉사단'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봉사단원을 모집 운영하며 (사)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매월 2회 복지시설 노력봉사, 독거노인 도우미봉사등 주요 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